보건복지부	보도참고자료	중앙 중앙일보

보도시점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	2024. 11. 12.(화)

보건복지부,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다

- 충청남도 지역 언론·대학생 대상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 개최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**11월 12일(화) 충청남도청 출입기자 70여 명**(충남 홍성, 오전 10시 30분)과 **충남도립대학교**(충남 청양, 오후 2시) **대학생 240여 명**을 대상으로 **연금개혁 현장 설명회**를 개최하였다. 이번 설명회에서 **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**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**연금개혁 추진계획***을 상세히 설명하였다.

* **(연금개혁 추진계획 주요 내용)** ▲지속가능성 확보(보험료율·소득대체율 조정,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), ▲세대 간 형평성 제고(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, 지급보장 명문화), ▲노후소득 강화(다층연금 제도 강화, 기초연금 인상, 군·출산 크레딧 확대 등)

이어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**세대별 의견수렴 내용**과, **군·출산 크레딧, 보험료 지원 확대** 등 **청년세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**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.

이기일 제1차관은 "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**신뢰 제고**와 **지속가능성 확보**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서,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**하루 885억 원**이 **후세대의 부담**으로 전가된다"라며 연금개혁이 **조속히 추진**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 아울러 "**보험료율**을 9%에서 **13%**로 올리는 **사회적 합의**가 이루어진 지금이 **연금개혁의 적기**이자 **골든타임**으로, **천재일우(千載一遇)의 기회**를 놓치면 안 된다"라고 언급했다.

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5일(화) 광주 지역 언론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, 앞으로도 **대전·부산** 등 **지역 현장**에서 **연금개혁 추진계획**을 설명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연금정책국 국민연금개혁지원단	책임자	부단장	유동욱 (044-202-3620)
		담당자	사무관	최진호 (044-202-362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